

15분 모의고사 7회 정답 및 해설

(1006 모의평가)

문법

1.㉓ 2.㉓ 3.㉓

1.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할 것. (2)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할 것. (3)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㉓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벨 소리보다 ~ 음악이 더 소중합니다’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이다. 그리고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이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㉒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며, 조건 (2)와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㉔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마음을 ~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이며,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나,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2. 어휘·어법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만화가 재미있다’의 ‘재미’는 ‘흥미’를 뜻하므로 ‘재미1’에 해당한다. <보기>에 제시된 대로, ‘재미1’과 ‘맛2’가 유의 관계인 것은 맞으나, ‘재미1’과 ‘맛1’은 다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맛1’과 ‘맛2’의 다의 관계에서처럼 형태가 같아야 하나, ‘재미1’과 ‘맛1’은 형태가 다르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여행의 ‘맛’은 <보기>의 ‘맛2’에 해당하며, ‘맛2’는 ‘맛1’과 다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㉒ 설탕의 ‘단맛’과 ‘쓴맛’은 <보기>의 ‘단맛’과 ‘쓴맛’에 해당하며, 이들은 <보기>에서처럼 ‘맛’의 하의어에 해당한다. ㉔ 상인의 ‘이익’을 ‘재미2’와 유의 관계로 본다면, <보기>의 ‘이익’도 ‘재미2’와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㉕ 소설의 ‘흥미’와 ‘이익’은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기>에 역시 그 의미 관계를 표시할 수 없다.

3. 어휘·어법 (감탄사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㉔의 ‘글썸’이 ㉓의 ‘글썸’으로 ‘-요’가 첨가된 것은 발화의 청자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㉑의 ‘뉘’는 다음에 이어지는 ‘명인’에 대해서 의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수용하거나 긍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㉒ ㉒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발화이

다. ㉔ ㉔의 ‘음’ 앞뒤에 반점(,)이 있다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㉕ ㉕의 ‘아니요’는 부정하는 의미이고, ‘아니 ~ 될 일이나’의 ‘아니’는 놀라움의 의미이므로 둘은 의미가 같지 않다.

독서

3.㉒ 4.㉑ 5.㉕

[4-6] 기술, ‘청력 검사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력 검사 방법은 청력 검사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검사 방법은 외부 자극 소리에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력 검사자의 반응 없이도 청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측정 방법의 기술적 원리를 귀의 구조와 연결해 핵심 정보로 소개하면서 그 한계, 이용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

4. 추론적 사고(근거의 파악)

정답해설 : ㉑은 ‘귀의 소리’가 청세포가 외부의 자극 소리에 반응하여 내는 자체적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문제의 의도는 ㉑과 같이 말한 이유를 이 글의 제시된 내용을 통해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글쓴이는 ㉑과 말한 이유를 ㉑의 바로 뒤에서 ‘달팽이관 메아리’와 달리 외부자극에 대한 ‘귀의 소리’가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점과,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 자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㉓ ‘귀의 능동적 소리’인지, ‘달팽이관의 메아리’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 ㉔ 3문단에서 ‘귀의 소리’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㉑의 근거로 알맞지 않다. ㉕ 3문단에 제시된 내용으로 ‘귀의 소리’의 특징이다. ‘달팽이관 메아리’ 역시도 개인별 차이가 있고, 개인별로 패턴을 가질 것이므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5.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귀의 소리’ 측정 방법과 원리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의 소리’가 ‘외부 자극 → 청세포 전달 → 청세포 수축, 이완 → 소리 발생’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후 귀의 여러 기관 거쳐 외부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 자극인 f1, f2가 마이크로폰에서 먼저 감지된 다음 ‘귀의 소리’가 마이크로폰에서 포착된다. 이는 모니터의 오른

쪽에 f2, f1 소리 후, f(귀의 소리)가 포착되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귀의 소리가 외이도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판단이다. ③ 자극 소리로 인해 귀에서 울림이 있으므로 메아리 소리도 감지될 수 있고 반응소리인 '귀의 소리'도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판단이다. ④ 2문단의 최대 '귀의 소리' 관련 공식에 대입하면 옳은 판단이다. ⑤ 귀의 소리의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옳은 판단이다.

6.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귀의 소리'가 청세포의 손상으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의 소리'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세포가 파괴된 환자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의 소리'가 청신경 자극이라는 점, 귀는 자신의 반응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부러 소리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귀의 소리'를 확인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③ '귀의 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④ '귀의 소리'는 청세포의 능동적 반응 소리이므로 그 여부에 따라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 학

7.⑤ 8.⑤ 9.④ 10.⑤

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내쉬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8. 비판적 사고(영상시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B, C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준거로서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의 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과묵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솔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10. 추론적 사고(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